

학교행사소식

1. ZOOM 입학식



2021학년도 입학식은 3월 2일 화요일 개학식과 함께 본교 1학년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부모님과 주차장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신입생들만 현관에서 방역 절차를 거쳐 선생님들의 안내를 받으며 1학년 교실로 입장하였다. 비록 부모님과 처음으로 떨어져서 입학식을 진행하였지만, 26명의 꿈둥이들은 입학식 내내 씩씩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입학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님을 위해 학교에서는 ZOOM 앱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였다. 교감선생님의 사회로 교장선생님께서 1학년 입학 선언과 함께 입학 축하 말씀을 해 주셨고, 1학년 담임선생님의 소개와 오후 돌봄 교실 선생님과의 첫 인사를 나누었다. 학교에서는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예쁜 꽃다발과 아주 멋진 칼림바(악기)를 입학 선물로 준비하였다. 끝으로 처음 불러보는 우리 학교 교가 영상을 보면서 입학식을 무사히 마쳤다.

2.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총회

2021학년도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총회를 3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에 ZOOM 앱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1부 학교설명회는 학급담임 및 교직원 소개, 김근호 교장선생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셨고 이후 대월교육과정 소개와 학부모 연수를 안내하였다. 2부 학부모총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결과에 대해 소개한 후, 새로 구성된 학부모회 임원으로 학부모회 회장에 성순복 학부모님, 부회장에 박미진 학부모님, 감사에는 김동희 학부모님께서 당선 감사 인사를 하셨다. 앞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서 정상적인 학교행사와 학부모회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ZOOM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총회를 마쳤다.

3. 동화구연 수업



1~2학년은 6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6회의 동화구연 수업을 진행하였다. "너는 참 특별하단다", "사자와 생쥐" 등 재미있는 구연동화를 듣고, 이야기와 관련된 표현 활동을 하면서 동화를 통해 배운 내용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면화하는 알찬 프로그램이었다. 동화구연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감동받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1, 2학년 친구들이 동화를 좋아해서 더 많은 책을 읽고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로 자라나기를 기대해 본다.

4. 문화예술수업



본교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예술 감수성을 함양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학기 동안 1~2학년군에서는 칼림바, 국악교육을 3~4학년군에서는 바이올린, 국악교육을 5~6학년군에서는 서예, 국악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된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고 예술적 표현과 감상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 전인적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우수성을 재발견하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자긍심을 키워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창조하는 창의적인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5. 과학의 날 행사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3일 까지 과학의 날 행사 주간으로 정하고 학년별로 과학 상상 그리기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1·2학년은 동·식물 관련하여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 다양한 알을 살펴본 후 알에서 깨어날 동물을 상상하여 그리고, 새싹 키우기 활동을 하였다. 3·4학년은 바다속 해저도시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리고, 폴리비닐 알코올과 붓사 2가지 이상의 물질을 혼합하여 새로운 물질(탱탱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즐기는 활동을 하였다. 5·6학년은 우주 관련 단원을 배우면서 우주도시를 상상하여 그려보고, 탄산수소 나트륨과 시트르산, 녹말을 섞어 거품목욕제를 만들고 발생하는 기체에 대해 관찰하였다. 또한 냉동실 없이 얼음과 소금을 이용하여 슬러시를 만들면서 과학의 원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6. 학생자치회 활동



대월초등학교 학생자치회에서는 1학기 동안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가정의 달 5월을 기념하여 소원나무에 소원을 거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호국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하여 학년별로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생자치회 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풍성한 1학기를 구성할 수 있었다. 1학기 마지막 활동으로 '방학아 기다려라!'도 7월 14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여름 방학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학생자치회의 마음이다.

3~7월 우리들 이야기



ZOOM 입학식



손 모내기 체험활동



행복농장 고구마 심기



서예 수업



도서관주간 행사



도마만들기 수업



서희역사관 방문수업



꼬물못 새살림 차리기



정구부 은메달 획득



농구 수업



경제프로젝트 수업

정구부 소식

제42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은메달 획득

본교 교기육성 종목인 정구부는 6학년 한동윤 학생이 3월 19일(금)~21일(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42회 전국정구대회 개인복식 종목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참가를 못하였으나 다행히도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여 본교 정구부와 학교의 명예를 빛내 주었다. 앞으로도 6학년 한동윤 학생과 5학년 이에아, 전윤찬 학생을 중심으로 열심히 연습하여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주기를 응원한다.

우리학교는 이렇게 수업해요

1-2학년 1~2학년은 전면 등교수업 실시로 저학년 친구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본 학습 습관 형성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과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수업과 학습활동을 실시하였다. 비록 코로나19로 현장 체험학습은 가지 못했지만, 교내에서 1~2학년 교과과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봄' 생태학습 프로젝트로 화단에서 예쁜 꽃도 관찰하고 학교 텃밭에 고구마와 방울토마토를 심었다. 2학년은 '생명 사랑' 프로젝트 수업으로 교실에서 예쁜 병아리를 부화시켜 키워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문화예술수업으로 칼림바 수업과 국악 수업을 진행하였고, 진로교육으로 종이접기, 구연동화, 도마만들기 목공, 코딩로봇, 캘리그래피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과수업과 함께 학교의 교육 환경을 활용한 생태, 문화 체험과 다양한 진로 체험 수업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3-4학년 3~4학년에서는 '자연속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제로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교육을 진행하였다. 친환경 행복농장에서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여 요리 활동을 해봄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건전한 식생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손 모내기를 체험해보면서 땅의 가치와 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조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 진로교육으로 캘리그래피와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행하였다. 캘리그래피로 글꼴의 변형을 익혀 표정이 있는 단어를 표현하고, 나만의 개성 있는 명함을 만들어 보았다. 소프트웨어교육으로 3D펜 작동 방법을 익혀 도안에 여러 모양을 만들어 보고, 색상 코드로 길을 만들어 오조봇을 작동시켜 보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원목 도마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였다. 목공 활동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문제해결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5-6학년 5학년은 프로젝트 수업으로 '꼬물못 새살림 차리기' 활동을 하였다. 꼬물못에 필요한 동식물을 제안하는 글을 쓴 후 전교생의 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선정된 파피루스, 부레옥잠, 마름, 연꽃, 수련, 우렁이와 붕어를 꼬물못으로 옮겼다. 학생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보살피고 있으며, 앞으로 동생들에게 꼬물못의 동식물을 소개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활동으로 우리 주변의 동식물을 관찰하는 기회가 되었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다. 6학년은 경제 프로젝트로 인생 게임을 통해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는 까닭을 알아보는 수업을 하였다. 학생들이 각 나라의 경제 교류 사례를 스스로 조사하고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든 후, 대월 뉴스 기자가 되어 발표하였다. 또한, 인생 게임을 진행하며 다양한 무역 상황 속에서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을 내리는 과정을 게임으로 체험하고 배울 수 있어서 즐겁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다.